
1995年度行政事務監査 文化教育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서울特別市教育廳

日時 1995年11月28日(火)

場所 서울特別市教育廳會議室

(14時 25分 監査開始)

○委員長 安順德;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同法施行令 第16條와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查에 관한條例에 의하여 서울特別市教育廳 특정사안에 대하여 1995年度 서울特別市議會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議事棒 3打)

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行政事務監査에도 불구하고 千百萬 市民을 대신하여 本 監査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本 監査 受監을 위하여 애쓰신 教育廳 關係公務員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特別市教育廳에 대한 1995年度行政事務監査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특정사안과 이에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세계는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地方化, 世界化, 情報化 時代를 맞아 자고 나면 새로운 기술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무한경

쟁의 높은 파도는 구시대적 교육행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동안 委員님들이 議政活動에서 얻으신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地方化, 世界化, 情報化 時代를 맞아 우리 教育廳이 어떻게 教育政策을 집행하고 있나를 조목조목 확인하여 채찍질하고 지원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教育廳 關係公務員은 이러한 行政事務監査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겸허하고 성실하게 受監에 임하여 내실 있는 監査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行政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教育廳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關係公務員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監 李俊海; (宣誓)

○委員長 安順德; 다음은 教育廳께서 먼저 幹部紹介를 하신 후 95年度 전반에 관한 業務推進現況에 대하여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監 李俊海; 존경하는 安順德 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을 모시고 95年度 서울特別市議會 第13回 定期會 行政事務監査에 앞서서 저희 教育廳이 추진하고 있는 主要業務現況에 대해서 報告드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月 12日 第4代 서울特別市議會가 개원된 이래 그 동안 여러 委員님께서 보내주신 서울教育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지도 성원은 저희 教育廳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은 물론 여러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된 데 대하여 충심

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서울교육의 施策方向과 主要業務推進事項에 대하여 지난 第78回 臨時會時에도 報告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들 8萬 餘 서울教育家族은 자라나는 오늘의 세대들이 성숙한 民主市民으로서의 품성과 미래개척의 용기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21世紀 知識情報化, 世界化 社會에서 세계 젊은이들과 함께 지혜를 겨루면서 멋있게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미래지향의 도덕적이고 창조적인 民主市民을 육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조화로운 人間교육과 教育의 질적수준 향상, 미래에 대비하는 教育과 자율적 창의적인 學校教育, 그리고 地方教育自治의 구현을 중점과제로 정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入試 위주 知識偏重의 획일적인 教育에서 탈피해서 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함양하고 개성을 존중하며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는 동시에 건강한 심신을 단련하도록 다양한 教育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덕적, 정서적, 지적으로 조화된 人間教育에 주력하는 한편 學生들로 하여금 몇몇한 韓國人으로서의 민족정기와 자긍심을 견지하고 傳統文化를 사랑하면서 世界的인 안목과 소양을 갖추며 폭넓은 國際 理解를 통해서 世界化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學校가 學父母와 地域社會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學生들에게 사랑과 꿈을 심어주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學校 運營이 되도록 教壇支援體制를 확립하는 한편 教育의 틀을 바로 세우고 서울교육을 세계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教育改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치관의 혼돈 속에 入試위주의 知識偏重教育이 완전히 불식되지 못하고 人間尊重의 정신과 공동체의식 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教育環境의 개선과 教育財政의 확보 등 教育懸案들이 산적해 있으며 이를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委員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支援과 指導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번에 실시되는 95年度 서울市議會 行政事務監査를 통해서 여러 委員님께서 보내주시는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教育施策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도모하고 首都教育으로서의 견인차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學生과 學父母 그리고 서울市民이 기대하는 활기차고 따뜻한 교육풍토를 조성하여 學生과 教師가 즐겁게 배우고 가르치는 면학기풍을 진작시킴으로써 서울교육이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8萬 餘 서울教育家族과 함께 온 정성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委員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企劃管理室長으로 하여금 95年度 主要業務現況을 상세히 報告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報告에 앞서서 저희 教育廳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幹部紹介 : 副教育監 柳海敦, 企劃管理室長 成耆璇, 初等教育局長 池容根, 中等教育局長 權榮燦, 社會教育體育局長 尹榮烈, 管理局長 鄭亨鎭, 總務課長 許榮俊, 公報擔當官 奇永度, 企劃豫算擔當官 韓相俊, 行政管理擔當官 金在平, 監査擔當官 崔在夏, 初等教職課長 申昌鉉, 中等獎學課長 洪性九, 中等教職課長 金在英, 社會教育課長 明聖一, 學校體育課長 金甲洙, 學校保健課長 金祉柱, 行政課長 朴鍾健, 財務課長 趙容頭, 施

設課長 李相烈, 建築課長 申元湜, 東部教育廳 教育長 閔庚覽, 西部教育廳 教育長 金得洙, 南部教育廳 教育長 余鎬根, 北部教育廳 教育長 梁在燾, 中部教育廳 教育長 吳榮煥, 江東教育廳 教育長 宋錫瑩, 江西教育廳 教育長 金行睦, 江南教育廳 教育長 權奭周, 서울教育研究院長 朴燦久, 서울教育研修院長 鄭用述, 서울學生教育院長 金性植, 서울科學教育院長 李種冕, 女學生生活教育院長 朴煥教, 學校保健院長 徐聖濟, 正讀圖書館長 金承玟)

初等獎學課長은 研修 중에 있습니다.

이상 幹部紹介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成耆璇; 企劃管理室長 成耆璇입니다. 지금부터 서울特別市教育廳이 추진하고 있는 教育業務現況을 報告 드리겠습니다.

.....

(報告)

교육청 업무보고

(報告中斷)

(뒤에 실음)

.....

다음은 94년도 서울特別市議會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는데 여기는 是正要求事項이 12건, 建議事項이 9건, 그 다음에 研究, 檢討事項이 5건 나와 있습니다만 委員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잠깐 보고를 중지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劉大運 委員; 劉大運 委員입니다.

지금 企劃管理室長께서 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셔서 고맙긴
합니다만 보고내용이 대부분 몇 차례를 통해서 우리 문화교
육위원회에서는 대부분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
머지 부분은 서류로 참고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
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간략하게 큰 대목만 말씀을 하시
고, 여기 한 권이 또 남았습니다. 그렇게 줄여주셨으면 합니
다.

○委員長 安順德; 거기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간략하
게 계속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成耆璇;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는 그냥 유인물
로 갈음하겠습니다.

.....

(報告繼續)

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順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 答辯順序입니다. 먼저 委員님들의 양해가 있으
시다면 원만한 監査進行을 위하여 一括質疑 後 잠시 停會한
다음 一括答辯으로 監査를 진행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補充
質疑를 통하여 一問一答式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
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一括質疑 後 잠시 정회한 다음 一括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教育廳 業務報告에 대하여 먼저 質疑하실 委員 계시

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徐在浣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浣 委員; 徐在浣 委員입니다.

서울市 教育財政이 절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동감하는 바며, 특히 서울의 5萬 4,000이 넘는 教育公務員과 千百萬 市民이 함께 생활하는 복잡 다양한 서울의 教育환경은 갈수록 어려움이 뒤따르고 열악한 教育財政이 누적됨에 따라서 30년이 넘는 學校建物 및 施設들은 이제 위험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本委員은 5個月間의 議政活動을 통하여 教育현장과 일선교육의 내용을 파악하면서 江南과 江北의 教育환경의 차이, 소음으로 인한 정상적인 수업을 못하는 學校, 國民學校 2부제 수업, 또 給食學校 問題, 실험실습기구의 노후된 장비 부족 등 많은 財政을 절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教育여건임에도 묵묵히 教育에 전념해 주신 5萬 4,000餘 教育公務員께 노고와 애정어린 마음으로 95年度 行政監査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本委員이 質問을 시작하겠습니다.

行政事務監査 要求資料에 보면 270페이지에 教育研究院, 敎員研修院 不用額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事業이 아니고 計劃된 教育研究 내지는 研修에 不用額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答辯을 해주시고, 따라서 271페이지에 企劃豫算擔當官에 不用額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와 같은 不用額이 생기는 것인가 答辯해 주시고, 또 科學技術課에 1億 5,000萬원 정도가 불용액이 예상되는데 現場에 가보면 과학기구들이 절대 부족해서 학습에도 차질이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不用額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答辯을 해 주시고, 따라서 271페이지에 他 教育廳에 비해서 西部教育廳이 약 6億원 정도 不用額이 나와 있는데 西部教育廳은 어떤 문제로 해서 이와 같은 不用額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答辯해 주시고요, 또 276페이지에 보면 豫備費 支出 豫定 現況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식관계로 해서 현장 학교를 방문했는데 약 30餘 個校를 다니면서 봤을 때 지금도 老朽되어서 施設을 補修해야 될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現場에서 목격을 했고 해서 豫備費 支出 豫定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現場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支出이 현재 다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오늘이 벌써 11월이 다 지나가는데 언제까지 地域에다 豫算을 넘겨줄 것인지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십시오.

296페이지 보면 私立 中獎高等學校 財政自立度 문제에 대한 解決方案이 나와 있습니다. 갈수록 私立 中獎高等學校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教育의 質이 떨어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좀더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計劃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答辯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私設學院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특히 3萬 2,800個가 넘는 各種 學院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社會體育局을 비롯해서 各 教育區廳의 여기에 擔當하는 行政公務員들은 극히 적습니다. 여기에 또 國民學校 給食까지 겹쳐서 절대적인 指導 監督이 부족하다고 本委員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부서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연구할 事項입니다만 各種 學院의 비리 내지는 새로 생기는 보습학원 정착, 또 115페이지에 나오는 學院團體 등을 통한 자율적 수강료 안정협조 유도, 또

118페이지 보면 학원 부조리 근절대책, 또 119페이지 보면 불법운영 학원에 대한 단속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社會教育에 대한 관심도 많습시다만 문제도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이 발생이 되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3萬 2,000이 넘는 學院을 지도 단속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社會體育 行政公務員으로는 도저히 불가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教育委員會 監查資料를 보더라도 各 區廳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本委員은 특히 개인적으로 23年 동안 社會教育을 해 오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學院聯合會라고 하는 教育部 直轄 法人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今年에도 자체적으로 도덕성회복운동도 실시했고, 고액과의 추방결의 대회도 하고, 일선 위문부대도 방문하고, 낙도어린이에 대한 초청도 하고 이와 같이 聯合會는 이제 30년이 넘는 團體로서 자발적이고 좀더 체계적인 團體活動을 통해서 자율적인 學院 規制를 스스로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의 문제점은 다 동참하지 않고 會員이 약 서울市에 50%밖에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會員으로 가입되어 있는 學院들은 대부분 法과 秩序를 지켜나가는 편인데 가입이 안 된 學院에서 대부분 이와 같이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지도 단속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다 指導 監督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속을 하는 곳은 하고 안하는 곳은 안하고 하다 보니까 一般 院長들의 불평은 어디는 단속을 해 주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편파가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인식을 일부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本

委員이 提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기이 聯合會 團體가 있고 자율적으로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좀더 유대를 가져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고 또한 예방조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條例라든지 內規를 통해서 좀더 團體의 활성화할 수 있는 확보를 해 준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절대인력이 부족한, 行政公務員이 부족한 그 부분을 같이 補完하면서 地方化時代에 걸맞는 民과 官이 같이 어우러져서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教育監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鄭韓植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韓植 委員; 銅雀區 鄭韓植 委員입니다.

企劃管理室長께서는 報告書 1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許光泰 委員;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네, 許光泰 委員 議事進行發言 하세요.

○許光泰 委員; 許光泰 委員입니다.

質疑하시기 전에 각 委員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자료 요청을 먼저 한 다음에 質疑를 계속했으면 하는 것을 建議드립니다.

○委員長 安順德; 그렇게 하세요. 委員님들 자료 요청이 계시면 먼저 해 주십시오.

○許光泰 委員; 먼저 자료 요청합니다.

教育廳과 地方自治團體間의 협조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教育廳과 서울市와의 협조공문, 94年 1月 1日부터 현재까지 협조공문 자료를 요청하고, 두번째는 각급 學校에서 教育廳에 결과조치 및 건의사항에 대한 공문을 요청합니다. 세번째, 科學

機資材現況, 이것은 江西教育廳과 江南教育廳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初·中·高를. 그리고 네번째, 95年度 현재까지 陳情, 請願, 異議 申請, 告發 등의 요지와 民願人, 그리고 民願要旨 사안별로 教育廳別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航空騒音 및 각종 騒音公害 피해로 인한 대책계획이 아까 報告에도 있었습시다만 年度別로 앞으로의 구체적 計劃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林靜枝 委員님 자료 요청해주세요.

○林靜枝 委員; 林靜枝 委員입니다.

남녀별로 90년부터 95년까지의 자살자의 수를 부탁드립니다. 또 初·中·高等學校別로 남녀의 인구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徐在浣 委員님.

○徐在浣 委員; 徐在浣 委員입니다.

각종 委員會 會議錄이 있으면 그냥 원본을 보고 싶습니다. 원본을 그대로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安順德; 李善宰 委員님.

○李善宰 委員; 李善宰 委員입니다.

學習不振兒 지도학습 자료가 아마 國民學校用, 中學校用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주시기 바라고요, 둘째로는 學校暴力에 관한 조사를 江東教育廳에서 조사하신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있으시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李英順 委員님 자료 요청하세요.

○李英順 委員; 李英順 委員입니다

地域 教育廳으로 이송한 民願의 내용과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學校安全工事의 규칙하고 그 다음에 사망자 중상자의 경우에 사고 형태별로 補償要求額과 支給額, 그리고 담배자판기 94年 1월부터 95年 10月末 현재까지 증감된 숫자, 그리고 各 教育廳別 사물함설치 學校現況을 자료 제출 바라 고요, 94,95年度 不實工事 형태별 지출내역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未給食學校 136個校가 있는데 各 教育廳別로 학교 명단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魚潤慶 委員님.

○魚潤慶 委員; 魚潤慶 委員입니다.

教育改革委員會가 구성되어 있죠. 教育改革委員會 신상과 명단을 요청합니다. 또 95年度 初·中·高利로 敎員 懲戒의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校舍 緊築이나 補修를 하는데 있어서 調達廳에서 一括入札한 것은 말고 教育廳에서 入札한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네. 徐在浣 委員님.

○徐在浣 委員; 徐在浣 委員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있습니다. 銅雀教育區廳 사설학원 행정지도 및 단속일지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安順德; 더이상 자료 요청하실 委員님 안 계시므로 鄭韓植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韓植 委員; 鄭韓植 委員입니다.

報告書 1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할 수 있는 것은 즉답을 요구하고요, 93年 이후 開校 新設學校 瑕疵補修 現況입니다. 豫定價, 落札價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總工事 費用인

지, 아니면 瑕疵補修金額인지 직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成耆璇; 17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鄭韓植 委員; 네.

○企劃管理室長 成耆璇; 이것은 落札價 契約價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鄭韓植 委員; 總工事 費用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成耆璇; 네.

○鄭韓植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66.3% 落札이 된거죠?

○企劃管理室長 成耆璇; 서울신내국민학교의 경우에는 예정가의 66.3%…….

○鄭韓植 委員; 아니, 이 報告書에 따르면 瑕疵補修 現況이라는 제하에 지금 總工事 費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瑕疵補修한 내용은 안 나와 있죠?

○企劃管理室長 成耆璇; 네,

○鄭韓植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 施工會社가 이 工事 이후에 또 우리 教育廳 工事を 受注한 사실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一括答辯時에 해 주십시오, 지금 확인이 안 되면. 이 施工會社가 이후에 또 다시 우리 教育廳 工事を 受注한 사실이 있는가, 受注한 사실이 있다면 얼마에 몇 件을 했는가.

다음에 두번째는 瑕疵補修의 규모가 안 나오죠, 이 報告書에는? 그 瑕疵補修 규모를 내용과 대략적인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내용과 금액을 자세하게 一括答辯時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林靜枝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靜枝 委員; 林靜枝 委員입니다.

非行學生 증가의 원인분석을 家庭, 社會, 學校別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非行學生의 원인 및 예방의 차원에서 學校教育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外國語實力이 세계에서 100위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初·中·高等學校에서 21世紀 가정생활의 지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安順德 委員長, 鄭韓植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鄭韓植; 劉大運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大運 委員; 報告內容에 대해서 몇 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報告內容 중 25쪽에 유치원 신설 8個가 있구만요. 教育廳이 9個 教育廳이 있어가지고 하나씩만 분담하더라도 9個는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당초 教育廳에서는 9個 신설할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다가 教育委員 중 여기에 유치원을 신설할 경우에 자기가 운영하는 그 유치원과 이해관계로 인해서 1個 施設이 빠진 것으로 이렇게밖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서울시 教育政策이 이해당사자에 의해서 줄어가지고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9個 유치원을 신설하려고 했다가 8個로 줄은 그 이유가 해당 教育委員의 이해와 관련해서 1個가 줄었다는 정확한 제보가 本委員에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고요.

이 轉入金과 관련해서 質問하겠습니다.

금년에 서울시教育廳과 서울시와의 豫算額 差額이 7億 4,900萬원이 발생했습니다. 유치원 敎員俸給 5億 6,800萬원

하고 中等敎員 增員分 1億 8,100萬원하고. 이 差額이 敎育財
政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 差額 발생에 대한
문제점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왜 발생했는지 이 설명에서
는 本委員이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고, 아울러 轉入金을 제때 서울市로부
터 넘겨받지 못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서울布敎育廳이 豫算
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또는 서울布 豫算關係者한테 전부 다 결재가 나서 지금만 받
아 오면 되는 그런 입장에서 敎育廳 高位關係者가 서울市에
가서 移轉 절차를 완료하고 豫算을 가져오려고 하면 서울市
에서는 下級職이 자리를 비어가지고 2, 3日 동안 계속 가야
되는 이런 애로가, 왜 議會에 정확하게 報告가 안 되어서 설
로 도는 것을 委員이 확인해야 되는, 이것 얼마나 불합리합니
까? 자기들 돈주는 것 아니에요.

敎育廳에서 移轉 문제와 관련해서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이
것은 반드시 시정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동안
에 豫算 轉入과 관련해서 어떤 애로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요.

제가 96年度 豫算案을 훑어봤는데 本委員은 調査特委에서
상당한 學校를 돌면서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이 敎育長들이 보통 行政 基礎團體에 만연되게 인
구로서는 한 189萬名 정도나 되는 이런 포괄업무를 하면서
품위유지비가 一般行政部署의 局長級도 안 돼요. 이 양반들
이, 여기 敎育員들이 앉아계셔서 정면에 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현실적 문제는 반드시 타개해 나가야 됩니다. 行政
區域과 人口는 200萬에 가까운 이런 방대한 業務를 가지면서
소위 품위유지비와 판공금액을 보면 業務가 품위유지를 할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적어요. 물론 基礎團體長의 수준에 맞춰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教育廳 자체가 事業部署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상응하는 품위유지비는 수반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本委員이 提案을 하는 것은 우선 흡족한 金額은 아닙니다만 50萬원 정도를 12個月 해서 600萬원 정도의 豫算이 支援되어야 합니다, 최소입니다. 그래가지고 來年度에 2個 教育廳이 增設될 것을 감안해서 50 급하기 12月은 600萬원, 급하기 11個 教育廳 計 7,200萬원밖에 안 됩니다. 물론 來년에 教育廳이 2個가 增設이 안 되면 나머지 2個 教育廳의 1,200萬원은 不用시키면 될 것이고요. 이래가지고 최소비를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줬을 때 문제점이 나타나면 거기에 따른 질책이 가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教育廳 전반에 걸친 事項으로써 재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學校運營委員會 示範運營과 관련해서 몇 군데 파악을 했습니다만 전에 育成會라든가 이런 運營하고 별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전부다 그 사람들이 이름만, 타이틀만 바꿔서 示範 運營委員會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현재 教育廳指定 學校 運營委員會의 示範運營이 教育監께서 보실 때는 과거보다 달라진 것이 있는지, 달라졌다면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또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만 지금 人口가 무려 한 教育廳當 平均적으로 百萬名이 넘습니다. 때로는 教育區廳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거의 배를 넘는 이런 넓은 地域을 擔當을 합니다. 그런데 社會體育課죠, 社會體育課 生라는 것이 참 방대합니다. 學院團束으로부터 각종 認許可 事項, 그러니까 일부 新聞이나 言論들은 말이죠, 午前에 가면 만나고 午後

에 가면 못 만난다. 그런데 이 사람들 뭐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사실 옳게 보지 못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잘못된 시각도 여기에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러나人口가 200萬名을, 그리고 行政區域 4個를 管理하려면 社體課의 職員도 百萬 社體課 職員이 관리하는 것하고 똑같이, 인원배당을 틀에 박아왔어요. 이러니 제대로 行政이 돌아갑니까? 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7년까지는 社體課 業務라든가 保健課業務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주 組織改編을 하루속히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初·中·高等學校 給食이 完了되면 약 1,000餘 個의 學校가 給食을 하게 되는데 과연 本廳 內의 保健課 傘下에 給食係를 뒹서 이 지도 감독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고, 地域教育廳으로 내려가면 社體課 內에 保健係가 하나 있는데 이 保健係 내용을 보면 保健職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배치 안 된 教育廳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職制는 있으되 실질적 수요에 의한 政策立案과 代案, 또 문제점을 건강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이대로 계속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本委員이 提案하는데 教育監께서는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廳 保健課 內의 給食係를 給食課로 組織改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地域教育廳 內에 社體課가 있습니다만 給食係를 하나 新設을 해야 됩니다, 地域教育廳 內에. 이 給食係가 앞으로 차지하는 業務가 여타 業務보다도 훨씬 중대하고 방만해서 이 地域教育廳 內의 保健係에서 감당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 代案도 좀 한꺼번에 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孫馥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馥 委員; 孫馥 委員입니다.

먼저 李俊海 教育監님께서 初代 民選教育監으로서 벌써 任期가 4年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 首都 教育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 많이 하셨고, 또한 그에 아울러서 200萬이 넘는 우리 千百萬市民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教育政策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잠깐 의견을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地方自治가 실시되어서 벌써 5年째 접어들었습니다만 地方議會가 탄생되고 또 한편 地方教育自治法이 실시되면서 教育委員會가 탄생해서 이렇게 教育의 양 수레바퀴처럼 하나의 議決機構를 이중으로 갖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그 동안 教育部나 또는 大民政府가 탄생하면서 教育에 많은 改革을 하겠다고, 또는 GNP 5%까지 教育財政을 확보하겠다고 大統領께서도 발표해서 지금 현재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每年 겪었습니다만 특히 今年에 와서는 教育改革의 일환으로 教育委員會와 地方議會에서 教育 常任委員會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法을 다시 改正해서 教育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견들을 教育改革審議委員會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本委員도 每年 주장을 해 왔던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教育改革審議委員會에서도 아마 教育監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教育法에는 地方自治團體長이 學校를 設立, 運營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地方自治法이나 地方教育自治法에는 教育學에 관한 事項 모두 立法權, 議

決權, 監査權을 양측에 다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 5年 동안 우리 教育廳 關係公務員들께서 教育委員會 監査받으랴, 또 地方議會 監査받으랴 참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今年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번거로움을 탈피해서 진짜 教育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法과 制度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教育監께서는 이러한 地方議會와 教育委員會의 양 기구를 어느 측면에서 더 教育 發展에 추구할 수 있도록 議決機構를 어디에다 뒀어야 되는지 의견을 묻고 싶은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사석에서 教育改革委員會에서는 教育委員會에다 議決權을 두고 地方議會는 委任事項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의 議會나 國會에서 議決權을 가지되 한 나라에서 2個의 國會를 가질 수 없듯이 한 地方自治團體에서 어떻게 독립된 2個의 議決機構를 가져야 하느냐 하고 내가 반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地方議會와 地方 教育委員會를 따로 분리시켜서 독립된 議決機構를 만든다면 中央에도, 國會도 憲法에 보장된 것처럼 教育의 政治的 中立性, 專門性, 또는 自主性を 부여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國會에서도 教育分野만큼은 그러한 政治的 中立性を 따지기 위해서는 따로 教育國會를 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우리 國民과 또는 自治團體로 보서는 서울市民이 政治的 그런 中立性を 떠나서라도 내 자녀의 教育, 또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教育을 잘받아야만 이 나라가 발전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教育監께서 참 중요한 판단이시겠습니까만 首都 教育 전체에서 이러한 의견을 한번 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또한 教育改革 內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입시지옥을 탈피하고 世界化, 情報化를 추구하는 그러한 教育改革이 현재 教育改革委員會에서 최근 議題로 나온 事項들이 생활기록부를 종합생활기록부로 바꾸고, 또는 본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수능시험과 내신성적을 各 大學에서 자율적으로 入試에 반영한다, 또는 學校 運營委員會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學校의 모든 어려움이나 또는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教育改革案입니다. 이것은 그 案을 물론 教育監께서 立案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教育現場에서 이것을 더 체험하고, 거기서 또 制度를 하나의 施行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制度가 이 정도 바꾸어서 과연 教育改革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현장체험에서 教育現場에서 그러한 느낀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社會적으로 물론 8萬餘 教育 관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教育現場에서 일일이 내 자식처럼 學生들을 보호해 주고 또 진로지도를 해 주시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만 진짜 教育에 어떤 집행단계에 있는 指導者 뿐만이 아니고 一線 教室에서 있는 教師들의 마음도 보면 우리 항상 이론과 실체가 맞지 않듯이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教師의 짙막한 教育現實에 대해서 피력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맞으시다면 답을 안해주셔도 좋고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한번 답을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실력고사, 모의고사의 성적이 다른 學校보다 우수한 學校가 좋은 學校의 기준이며, 다른 學級보다 평점이 좋은 반이 우수반이며, 다른 學生보다 석차가 앞서는 學生이 훌륭한 모범생

이 되는 것이 오늘날의 敎育現實입니다. 이로 인하여 學生들은 아침 6時에 일어나서 7時에 등교, 아침자습, 방송수업, 보충수업, 정규수업 또는 보충수업, 자율학습, 학원과외를 마치고 저녁 늦게 지칠대로 지친 몸이 거의 녹초가 되어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공부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 나라 學生들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學生들은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허다하여 健康을 해치게 되며 신경쇠약 등 각종 질병을 앓기가 예사입니다. 더군다나 밤에는 공부하고 대낮 정규수업 시간에는 조는 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學生과 敎師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어서 선생님에게 속사정을 말하기는 커녕 오히려 敎師를 적대시하고 속이기 일쑤입니다. 담배를 몰래 피우다 적발된 學生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본드 흡입, 약물복용, 환각제 사용, 가출 등 점증하는 學生들의 탈선이 심각한 社會問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감옥과 마찬가지로 學校는 많은 學生들을 일정기간 동안 수용하는 施設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50餘 名의 學生들 앞에서 대부분의 敎師들은 별로 敎材 準備도 없이 주입식 학습과 입시문제 풀이식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식 수업, 시청각기재 이용, 분담학습 등 의창의적 수업방법은 시설 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고 후 施設이 있다 하더라도 입시 준비와 수능시험 성적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授業을 실천하는 敎師는 學生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學父母의 원망까지 사게 됩니다. 실력 있는 敎師는 학원식 문제풀이를 잘하는 敎師이기 때문입니다. 學生 指導의 극단적인 편의주의식 방법으로서 敎師들이 몽둥이를 드는 경우가 예사이며 날마다 상말로 學生을 위협하고 때리기

가 관례처럼 되었습니다. 敎師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납고 저속한 말을 예사롭게 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뺨쳐, 오리 걸음 걷기, 머리쳐박기, 손찌검 등의 군대식 처벌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學生들도 이를 배워 폭언과 욕설을 거리낌 없이 내뱉곤 합니다. 심지어 가장 점잖아야 할 學校長까지 위협적인 폭언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敎育現實이 과연 진실이라면 여기에서 1年을 마감하는 監査場입니다만, 우리 한번 기성세대들이 또 여기 계신 敎育監 이하 敎育에 큰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이 後輩들이신 그러한 一線敎師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해 주신다면 진짜 敎師가 바로 서야 敎育이 바로 서고 敎育이 바로 서야 國家가 바로 선다는 그 말씀이 있듯이 後輩敎師들을 잘 지도하시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敎育現實이 제가 읽은 대로 현실이라면 더이상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시라면 좋은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1世紀는 이제 尖端科學時代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世界化 情報化 時代에 대비한 우리의 科學人力 양성을 우리는 필히 해 나가야 됩니다.

人性敎育 다 중요하죠. 이제 우리 나라도 2000年代는 노벨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人材를 양성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진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고 또한 國家競爭力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科學敎育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아르키메데스가 불의 원리를 이용해

서 하나의 노벨상을 받을 때 그 사람은 항상 목욕탕에만 다녔다고 합니다. 理論만 가지고 안 됩니다. 실제 우리의 科學教育現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시 위주의, 주입식 위주의 그런 教育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科學者인 발명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探究實驗 중심의 科學教育 추진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科學教育 육성을 위해서 현재 國民學校에 65%, 中學校에 67%, 高等學校에 75%입니다, 實驗實習 設備現況이.

그런데 제가 國民學校에도 물어봤고, 中學校에도 물어봤고, 高等學校에도 물어봤습니다. 適當 이러한 科學教育 분야에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는지, 또는 그러한 實驗實習室에서 學生들이 과연 1년에 몇 번 들어가서 實驗을 해 보는 것인지, 비이커에는 전부다 먼지만 쌓였다고 합니다.

우리 진짜 재점검해 볼 때가 왔습니다. 꼭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할 실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더 주위를 바로 보고 그야말로 教育은 돈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科學教育의 내실화, 實驗實習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 科學英才教育을 위해서 좀더 이제 입시 위주보다는 그런 내실있는 하나의 技術教育으로 우리가 전환해서 좀더 教育豫算을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答辯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許光泰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光泰 委員; 許光泰 委員입니다.

먼저 李俊海 教育監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과 그리고 一線 教育廳에서 노력하고 있는 教育長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 지

난 給食學校 行政事務調査를 위해서 學校를 둘러보면서 그래도 미래의 教育은 가능하다,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教育現場이 안고 있는 갖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몇 가지 質疑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教育與件 改善方案에 대한 質疑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教育豫算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앞에서 同僚委員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시다만 현장에서 教育하고 있는 분들은 더욱 실감이 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學校의 施設이 현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施設費 13.5%가 적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施設費 投資에 과감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答辯을 해 주시고.

教材와 教具가 낡았기 때문에 좀 고급화가 되어야 되겠다, 質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 教具나 이것을 學校에 기준을 두었는데 이 기준을 學級單位로 기준을 두어서 확충을 해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敎員들의 근무조건 개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教育의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나친 실적 위주 또는 전시효과적인 업무를 과감히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자료를 통해서 公文下達된 것을 살펴보았습시다만, 형식적이고 또는 의례적인 사항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전시적인 것 이런 것은 과감히 탈피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과 電算化를 통한 효율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學校에서는. 이 부분에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專門職으로 선발하는 제도 폐지를 고려할 뜻이 없는가, 그러니까 獎學士는 교과특성에 맞는 학습지도 모형을 개발을 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研究士는 우리 教育現實에 맞는 이론을 정립해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獎學士와 研究士의 專門職 선발에 대한 전면적 폐지의 고려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員研修制度에 대한 얘기입니다.

再敎育의 강화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데 專攻別로, 그러니까 敎科別입니다. 단계적 研修가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研修에 學點制를 도입해서 보수 및 昇進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特殊敎育, 상당히 심각한 우리 社會的인 문제로 안고 있습니다. 特殊敎育의 研修, 제도적 장치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敎科 1特技敎育이 의무화되어야 되겠고 特技指導 手當도 지급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敎育監의 의견은 어떤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初等敎員과 中等敎員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이점으로 인해서 初等敎師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授業手當 支給問題와 그 다음에 擔任制 手當 支給 이것이 차이점을 이루고 있는데 中等敎師에 맞는 手當 支給이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質疑입니다.

지금 UR로 인해서 外國人 學院運營法이 현재 제가 알기에 는 서울에서 한 군데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대책없이 밀려오는 UR의 바람 때문에 고민하고 또 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를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

히 이 外國人들이 투자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특히 私設學院街는 外國人들이 불법으로 취업하는 양성장소가 돼버렸습니다. 관광여행비자를 가지고 와서 韓國의 教育熱을 그네들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자비하게 外國人 講師를 취업을 시킴으로 해서 學院의 질적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문제, 특히 學院 運營에 관한 法律을 위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本委員의 조사상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보습, 속셈, 입시학원, 심지어는 유치원에서까지 실시를 하고 있고 外國人들끼리 조를 편성해서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까지도 사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世界化, 國際化를 위해서 外國語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시기를 틈타서 이토록 外國人들이 무질서하게 學院에, 또는 사회 곳곳에 양성되는 부분이 있다는 指摘을 하면서 對策을 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가 各級學校 給食行政事務調査를 다니면서도 체크가 되었습니다만 給食實施 學校의 위생이 대단히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所管部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까도 同僚委員께서 指摘을 했습니다만 職制改編이 시급히 뒤따라서 行政 指導 監督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前提로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學校 關係者 및 學父母 代表 입회하에 납품 즉시 검수하지 않음으로써 中下品으로 물품이 반입되고, 반입된 물품상태로 조리가 시작됨으로 해서 學校給食營養基準値에 미달되는 事例로 검수시간을 조정, 또는 전담직원이 철저히 검수할 수 있도록 措置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答辯을 要求

합니다.

그리고 分離購買 未實施로 인한 一括購買, 어느 特定業體가 선정되어서 一括購買가 되는, 혹은 금품수수나 또는 부조리가 발생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경우를 봤고, 특히 납품계약의 연장이 될 수 있으므로 식품별 생산업체와 전문 취급 식품별로 공급업자의 구분을 학교 거리에 따라서 地域教育廳에서 指導해서 學校에 購買시킬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바른 教育改革을 위한 서울教師 100人宣言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95年 5月 31日 발표된 教育改革案은 우리 教育의 열악한 상황과 과행적인 관행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필연성에서 나온 것이며, 우리 教育은 정말 이대로 둘 수 없을 만큼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런 문제의식은 國民 모두에게 널리 퍼져있는 사실을 익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教育改革案도 教育 消費者 主權을 내세운 철학적 명분 때문이었으나 施行上의 많은 구체적 事例들이 改革의 우회로 뒷걸음치지 않나 생각하면서, 事例 中の 하나로 學校運營委員會의 기능과 운영방법 등의 改革案이 一線 校長들의 반발로 밀려서 議決과 審議機能을 함께 갖기로 한 원래 趣旨와는 달리 審議機能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때 맞춰서 서울教師 100人的 教育改革宣言은 그 동기가 어떻든간에 -總 現場에서 수십년 동안 보고 느껴온 점을 반영코자 教育改革委員會의 國民提案倉庫에 접수시키고, 행동에 옮긴 동기가 진정 懲戒事由가 되는지 本委員會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95年 8月 1日 教育改革推進委員長인 李洪九 總理는 記者會

見에서 教育改革方案을 執行하는 데 있어, 國民과 教育關係者 등의 의견을 수렴 원칙은 지키되 추진에는 상당한 유연성을 보이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또한 同年 8月 29日 劉海敦 副教育監께서는 教育改革에 대해서 教育現場의 분위기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고 밝히고 아무리 좋은 政策일지라도 學生, 學父母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공염불이라며 教育改革을 위해서는 教育 需要者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指摘한 바가 있습니다.

同年 5月 10日 宣言에 참가 記者會見까지한 教師들의 올바른 教育改革을 위한 서울教師 100人 宣言 教師의 입장 6個 項目과 提案 7個 項目은 教育改革案에 조금이나마 반영되었으나 두어달이 흐른 뒤 李洪九 總理와 李俊海 教育監이 발표한 教育關係者와의 教育 需要者의 意見を 收斂해야 한다는 宣言에 참가한 教師들의 명분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8月 25日과 30日 사이에 代表者인 윤한탁, 이의협, 김덕일, 최병권, 정해숙 선생님들께 정직, 승급정지,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린 이유는 아직도 非民主적이고 官僚的인 行政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本委員은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한 懲戒委員長인 劉海敦 副教育監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事案別 質問드리겠습니다. 教育改革案과 비교 검토 여부에 宣言文의 내용을 檢討해 보았는지 이에 答辯해 주시고, 두번째, 宣言文의 검토여부와는 관계 없이 敎員勞組의 허용에 대해서 집중 추궁한 점은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現 教育委員 中에서도 全敎組 出身이 몇 분 있는데 이 분들을 選出한 서울市 議會의 처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네번째, 宣言教師의 자녀까지 불러다가 父母의 행동

을 추궁하는 것 자체는 어린 學生의 앞날을 매우 어둡게 하는 반인륜적인, 비양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授業 中인 教師를 불러서 배석시켜 문답서를 기록케 하는 授業權 방해에 위배되는 事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근무이탈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答辯해 주십시오.

여섯번째, 懲戒委員인 서울시教育廳 局長級 幹部 역시 다년간 學校 現場에서 勤務해 오신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과연 宣言教師들의 행위가 懲戒事由가 될만큼 非合理的이었나, 바꿔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懲戒委員들의 중론은 어떠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이번 懲戒의 事由는 다름 아닌 教育部의 指示를 받은 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懲戒教師들의 陳情書를 보면 他 地域 宣言教師들에 대한 懲戒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教育廳만 이 문제를 거론한 理由는 무엇이지, 아홉번째, 集團行爲에 대한 根據가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提示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의에 반하거나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지 않으면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大法院의 判決에 대해서 이 判決文에 위배되는 宣言教師들의 행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徐在浣 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徐在浣 委員님 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浣 委員; 議事進行發言 하겠습니다.

9個 教育區廳 教育長님들은 특별한 委員님들의 質疑가 없으면 業務도 있고 하니까 퇴청해 주는 것이 어떨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한 일 없죠? 9個 教育廳 教育長님들은 퇴청하도록.....

○委員長代理 鄭韓植; 잘 알겠습니다. 劉大運 委員님 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大運 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물론 地域教育廳의 業務도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中론이 質疑는 다 끝난 다음에 해당 答辯하실 분은 오늘 答辯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되면 그때 가서 퇴청하시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傘下 機關長들도 여기 배석해 있습니다. 傘下機關長들한테 委員님들이 質疑하는 내용 거의 없어요. 이 분들도 이따 함께 1次 質疑가 다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停會 後에 決定 내려서 가시는 문제를 檢討했으면 합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알겠습니다. 一括質疑가 끝난 다음에 決定하도록 하고, 質疑를 계속하겠습니다.

李善宰 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李善宰 委員; 李善宰 委員입니다.

제가 資料要請했던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質問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國民學校 2學年 이상의 學生中에 한글 미해득자와 간단한 셈하기를 못하는 學習遲進兒 問題에 관해서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義務教育課程의 學生들 중에 한글 미해득자와 간단한 셈하기를 못하는 學生이 國民學校에 3,535名, 中學校에 1,610名 計 5,141名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 천명쯤 되는 國民

學校로 본다면 아마 5個 國民學校 정도에서는 이런 學生들이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이들에게 한글과 셈하기 정도는 우리가 教育시켜서 그들이 卒業 後에 일상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學校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教育監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한글 미해득자와 셈하기를 못하는 學生을 선별하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시는지, 또 學年初와 學年末을 비교해서 그 퇴치된 실적은 어떤지, 이들을 위한 特殊學級이 있는 것 같은데 몇 學級이나 되며, 그 特殊學級에서 공부하는 학생 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騒音基準値가 넘어 學業에 지장을 주는 學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騒音防止施設 未設置 學校가 서울市內 108個 學校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教育廳에서 말씀을 하셔서 아마 施設해 주겠다고 서울市나 鐵道廳이나 또는 서울地方航空廳에서 말씀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騒音が 學校 教育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문제이니까 이 심각성을 施設管理主體인 서울市, 鐵道廳, 서울地方航空廳 등에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防音設置가 빨리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航空騒音被害學校에 대해서는 냉방시설 설치할 計劃이 95年度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진척사항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학교폭력조직 실태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本委員이 要請한 資料에 의하면 학원폭력조직이 中學校에 118個校, 高等學校에 31個校 그래서 149個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폭력조직을 어떻게 指導하고 있는지, 또 그 指導 成果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제에 이 學父母, 教師, 教育廳關係者, 地域人士, 警察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청소년폭력근절을 위한 어떤 對策機構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檢定考試 問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檢定考試를 본 學生이나 또는 檢定考試를 실시하는 教育機關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檢定考試라고 하는 것이 高等學校를 그것 보면 들여보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高入 檢定考試 같은 것은 聯合考查 문제보다도 어렵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에게 얘기한 얘기를 들으면 이 資格試驗을 마치 支援生을 불합격시키기 위한 試驗인양 한두 科目을 어렵게 출제하여 많은 應試生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어 보편타당성 있는 문제가 출제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1년에 4월, 8월 이렇게 2회 실시하고 있는데 이 時期도 2월과 8월, 6個月間의 간격을 두어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學校施設 이용하는 데도 좋고 또 基督教인들이 기피하는 일요일에 試驗 보는 문제도 해결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그것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高等公民學校와 公民學校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高等公民學校와 公民學校는 教育法에 있는 學校입니다. 그리고 社會教育法이 제정되기 이전에 社會 教育에 관한 부분을

담당해 오던 學校들인데 이 學校들이 제구실을 현재는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學生數가 감소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當局에서 정해 준 納入金, 授業料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저렴해서 그것을 가지고는 學校를 운영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그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 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公民學校의 경우는 私立國民學校의 授業料의 23%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私立國民學校가 한 달에 8萬 744원꼴을 받는다 그러면 公民學校는 이것을 1萬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高等公民學校는 中學校 授業料만의 60%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육성회비를 제외한 授業料의 60%니까 이것도 아마 육성회비를 포함해서 계산한다고 하면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아래 高等學校의 각종 學校를 보면 여기는 한 달에 7萬 1,525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學校形態社會教育施設이라고 하는 곳에는 6萬 2,600원을 받고 있는데 각종 學校는 정규학교의 約 99%쯤 받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學校들에게 公納金을 해당하는 學校 수준으로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어떨까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나오면 高等公民學校나 公民學校나 學校形態社會教育施設이나 이런 곳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學生들이 나와서 공부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登錄金을 너무 올려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경제사정이 좋아져서 한달에 돈 몇 만원 때문에 學校를 나가고 못나가고 그렇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생각은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들의 公納金을 올려주는 것이 무슨 物價와 영향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 公民學校라는 것은 서울市內에 하나밖에 없고 그 學生數가 한 500名 정도 됩니다. 高等公民學校라는 것이 둘 있는데 다 합해서 한 150名 정도밖에 學生이 안 됩니다. 또 學校形態社會教育施設이라는 것이 아마 다 합쳐도 한 2,000名쯤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登錄金을 한 달에 1萬원쯤이나, 1萬5,000원쯤 올려가지고 우리 나라의 物價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유를 해서 이것을 현실화하는 문제를 자꾸 묶고 있지 말고 한번 현실화해 주셨으면, 만약에 제 말이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몇 개 안 되는 곳이니깐 한번 現場에 가서 그 教育擔當者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성의있게 이 문제를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靑少年의 약물남용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데다가 그 약물 사용하는 연령도 크게 낮아져서 심각한 社會問題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年度부터 初·中·高等學校 學生 身體檢査를 할 때 이 약물검사를 실시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市教育廳에서는 이 약물검사를 96년부터 그렇게 하실 예정이신지, 그리고 검사한다면 어떤어떤 약물검사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教育廳이 파악하고 있는 약물남용 학생실태는 어떤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高等學校 中退問題입니다. 延世大學校 社會發展研究所의 學業中退者의 실태와 대책이라는 논문을 보게 되면 中·高等學校

學生 가운데 學業을 中斷하고 中退하는 자가 每年 6萬 내지 7萬名에 이르고 이것은 在學生의 1.5%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中退時期는 高等學校 1學年이 中退者의 32.6%로 가장 많고, 高2가 25.8%, 中學校 2學年이 18%, 中學校 3學年이 11.2%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市教育廳에서는 1년에 몇 명의 學生이 中退하는지 이것을 初·中·高로 구분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中退者의 60%가 다시 學業에 복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教育對策이 필요하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教育監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이들 中退者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中退한다고 보고 계신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金乙東 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金乙東 委員; 金乙東 委員입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教育廳에 계신 여러분들 인사하실 때 뵈니까 女學生 지도하시는 선생님만 딱 여자 한 분이고 몽땅 남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政府도 그렇고 男女平等雇傭法이다 어쩌다 해서 굉장히 여자를 대우를 해주려고 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教育監님께서서는 어떻게 9個 教育長 중에서 여자 분을 한 분도 그렇게 배정을 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듣기로는 여자 教育長님이 계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그 教育長님이 있어서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든가 실력이 미

달됐다든가 지도능력이 없었다든가 기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 敎育長님을 한 분도 발탁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이유 좀 밝혀 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것은 우리 여성에 대해서 좀 敎育廳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에 정말 이것은 男女平等 차원에서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李善宰 委員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學園暴力 事態가 심각해서 大統領 指針示達까지 내려온 마당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특별히 敎育廳에서 이렇다할 방침이 잘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韓國文化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의미에서 傳統文化라든가 이런 것을 敎育하는 것을 마련해 놓으신 것 같은데 第6次 敎育課程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傳統文化를 가르치려면 거기에 대한 專門敎師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傳統文化에 대해서 敎師들한테 물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가르칩니까 하니까 거기에 專門 선생님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理論이나 가르치고 그냥 이렇다 하는 것만 가르치지 우리가 음악, 미술 이런 데에서 이것은 완전히 특별한 特殊指導能力을 갖춘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傳統文化藝術을 가르치는데 專門敎師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나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李英順 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李英順 委員; 李英順 委員입니다. 우선 學校教育改革案에 대해서 몇 가지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學校運營委員會의 운영에 관한 몇 가지 우려점이 있는데 우려점은 많은 敎育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과 저희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인데 學父母들에게 공공연히 이제는 學校運營資金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굉장히 담겨져 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入試競爭過熱을 더욱 부채질해서 지금도 이런 入試競爭에 의해서 아이들이 자살이라든가, 탈선, 非行靑少年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더욱더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敎師들의 노동강도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왜냐 하면 綜合生活記錄簿를 작성한다든가 補充授業을 지도한다든가 이런 많은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것들이 굉장히 운영에 관한 우려점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고자 하시는 것인지 그 대책이 있는지 答辯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運營委員會의 구성인 중에서 外部人士가 2·30%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學校 育成會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옆에서 많이 지켜보면 政治性을 다분히 띠고 있는 사람들이 개입함으로써 學校 운영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敎育을 운영하기보다도 學校 初·中·高等學校에서부터 벌써 상당히 學父母들을 정치적 풍랑으로 휘몰아치는 이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 學校 出身인 동문 중에서도 外部人士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더더욱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까지 보여진 것들이 이런 學父母들을 정치적 풍랑으로 몰고 나가는 데 있어서 많

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느 教育區廳에서 이런 우려를 하신 教育區廳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滿 5歲 早期入學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滿 7歲가 되어야 入學이 허용이 됩니다. 오히려 한 살 아래로 내려서 滿 6歲에 入學을 허용하는 이런 분위기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의 早期 育成에 관한 밸런스를 맞춰나갈 수 있는 그런 教育方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滿 5歲 아동을 學校에 早期入學을 한다면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또 선생님들의 과중한 업무가 더욱더 과중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초래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世界化教育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世界化教育에 대한 方針을 보면 正規外國語教育, 外國學校 姉妹結緣이라고 하여 이렇게 世界化 教育을 政府施策하고 맞춰나간다고 하는 世界化教育의 政策입니다. 이문제, 이 내용을 보건대 아까 孫馥 委員께서도 指摘을 했듯이 우리의 지금 教育方針이 아직도 주입적이고 강제하는 그런 일방적 教育을 指摘을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世界化教育의 이 方針이 바로 또 하나의 새로운 강제방식의 教育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正規 外國語教育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지만 우리들의 教育이 창조적이지도 못하고, 자발적이지 못한 그런 教育의 方針을 그대로 안고 있는데 또 이런 새로운 世界化教育이라고 하는 이런 틀에 짜맞춰서 새로운 주입식방

식의 이 教育方針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學生 체벌과 폭력적 지도에 대한 民願이 여러 件이 나오고 있습니다. 民願이 진정되지 않아도 學校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父母들의 원성이 굉장히 자자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들은 아이들의 폭력적인 성격을 더욱더 유발시키고 그리고 이것이 地方, 政府 전체가 우려하고 있는 아이들의 이런 폭력서클, 집단적 폭력 이런 부분들이 유발되는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學習的 指導에 대해서 教育廳에서 발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調査를 하고 있는지 그 對策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난번 10月 議政質疑에서 삼성고등학교 성추행 教師에 대한 문제점을 指摘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答辯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學校運動場에 地下駐車場을 만들어라라는 요구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本委員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이들의 教育上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첫째 理由로는 범죄의 온상지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범죄의 온상지 뿐만이 아니라 交通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이런 人命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方針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0볼트를 220볼트로 승압해야 하는 學校가 아주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豫算이 부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施設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몇몇 教育區廳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代案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代案을 提示해 보고자 하는데 教育監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94年度 韓國電力의 純利益이 8,818億 2,900萬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막대한 純利益을 남기는 韓國電力에 教育監과 教育部長官께서 적극적으로 교섭을 하셔서 연차적으로 學校에 韓電이 무료로 施設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섭을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요? 혹시 그런 노력이라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初·中等學校의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가져오게 합니다. 이 재활용품을 學生들이 가져오게 해서 學校에서 이것을 받아서 學校運營費 내지 또는 여러군데에 사용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재활용품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一部學校 校長께서는 學校安全共濟會에 會費로 納付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액화가스 1個校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學校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구요, 民主市民教育研究會라고 하는 團體가 있습니다, 會員이 1,500餘 名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年間 活動이 세미나 1회와 會報를 한번 發行한 것이 고작 1年 內的 活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年度에는 會員의 會費가 300萬원인데 教育廳에서의 支援은 1,000萬원이었고, 95年度에는 會員의 會費가 255萬원인데 教育廳 支援金이 920萬원이었습니다. 本委員이 보기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團體에 일방적으로 教育廳이 지나치게 豫算을 支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 다음에 構成員들이 모두 男子입니다. 더구나 이 團體의 이름이 民主市民教育研究會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民主市民教育研究를 바람직하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女性會員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끝으로 始興, 禿山洞에 18萬人口가 밀집되어 있는데 高等學校가 하나도 없다라고 많은 地域住民들이 진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對策을 세우고 계시는지 答辯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梁東錡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東錡 委員; 梁東錡 委員입니다.

어린 새싹들의 教育을 전담하고 계시는 李俊海 教育監님과 배석하신 關係公務員 여러분께 먼저 고마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質問하겠습니다.

제가 資料要請한 것을 보면 서울市內 指定된 學校用地 現況이 있습니다. 여기에 指定된 學校가 總 101個 學校인데 私有地가 58個所가 됩니다. 그런데 이 私有地는 指定된 지가 오래된 것들이 많은데요 이것을 이미 땅값 垡地代金을 전부 支給을 하고 指定된 것인지, 아니면 教育部에서 指定해 놓은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96年度의 各級學校 設立計劃 現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北部教育廳 管轄 地域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운국민학교라고 있는데, 道峰區 倉 몇 洞이라고 그러는데

倉洞이 5洞까지입니다. 몇 洞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北部教育廳 管轄에 가서 특히 道峰區에 高等學校를 지금 指定을 해 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 雙門洞입니다. 雙門洞인데 사실 아까 우리 同僚委員도 말했지만 우리 道峰區에는 人文高等學校가 없습니다. 高等學校를 지금 82年度 2월에 指定을 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計劃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教育部에서 지난번에 國民學校에 英語를 正規科目으로 채택한다 해서 3學年부터 6學年까지 4個 學年에 한다라고 해 놓고 요사이에 와서는 教育改革委員會하고 世界化推進委員會가 英語教師 확보하는데 지장이 많다 해서 97年度부터 3學年만 채택한다 이렇게 했는데 3學年만 하더라도 서울市內의 3學年이면 學級數가 나올 것입니다. 그 學級數가 몇 個나 되며, 거기에 대한 97年度英語教師를 다 채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對策을 지금 세우고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주시고, 다음에는 地方 忠州에 연수국민학교라고 있습니다. 教師는 37名인데, 어머니선생님과 공부를 하니까 신난다고 그러니까. 教師들이 자원봉사 어머니들입니다. 현재 217名이 하고있다고 그래요. 엄마선생이라고 해서 이름표를 달아 붙이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아주 친밀감이 생기고, 그냥 눈이 마주치면 어머니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또 선생 혼자 40餘名을 指導하는 것보다는 엄마들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教育을 시키고, 計算도 해 주고, 教材도 檢討를 해 주니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檢討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서울市內에 책가방 없는 날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책가방이 없는 學校가 여기도

地方學校인데 水原에 있는 國民學校에서 在學生 1,650餘 名 하고 學父母 1,173名, 教師 47名 그래서 2,872名을 대상으로 設問調査를 했는데 贊成이 88.3%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하면 책가방 없는 날 教師들이 어떻게 學生들을 指導하느냐 그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사실은 4, 5, 6學年은 책가방 무게가 9kg에서 10kg이라고 나왔네요. 1, 2, 3學年은 무게가 6.2kg이라고 나왔고. 그런데 책가방 없는 날에 대한 앞으로 지금 현재 서울은 실시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몇 個校나 실시를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저는 道峰區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江北區 삼양국민학교, 지난번에 現場監査를 나갔었는데 給食施設이 삼양국민학교가 老朽되어서 그것을 빨리 安全診斷을 한 다음에, 1億 5,000萬원이면 給食施設 운반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學校 쪽에서 얘기하고 學父母 들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安全診斷을 해서 다시 지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同僚委員들이 폭력서클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여기 教育監 이하 關係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나라 지금 大學은 참 들어가기는 힘들고 나오기는 쉽고 이런 식인데 中·高等學校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今年度에 中學生이 高等學校 進學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체 學生의 몇 %나 되는가, 이 애들이 學校에 안 가고 집에 놀다 보니까 깡패가 되고, 學校 주변에서 그런 것을 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高等學校는 入學을 해서 卒業할 때 成績에 따라서 이런 것을 檢討를 한번 했으면 깡패방지책으로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지금 제가 이 폭력에 관

한 것도 많이 新聞에서 봤습니다만 전국적으로 刑事犯이 53%인데 서울은 몇 %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살이 33%라고 나와 있는데 서울에서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어 있고, 정말로 우리 지난 번 常任委員會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學校 주변에 가 보면 女學生 화장실에서 담배연기가 막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指導를 시키기 위해서 물론 學父母와 현지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靑少年 指導 차원에서 잘 지도감독해야 이런 것의 방지책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鄭韓植 幹事, 安順德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安順德; 魚潤慶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魚潤慶 委員; 魚潤慶 委員입니다. 同僚委員들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좋은 質疑를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主要業務報告를 들으면서 이렇게 좋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또 열심히 教育을 시키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 教育現實은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하는 당황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극히 적은 일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나 教育의 참된 노력은 오히려 문제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일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同僚委員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요즘 10代 靑少年들의 學園暴力이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데까지 와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를 걱정하게 만들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시급히 서둘러서 마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學校 周邊 暴力輩에 시달리던 어린 學生이 자살하기까지 이르는 이런 불상사가 어찌 남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校內 暴力도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 579 個의 暴力不良組織이 있으며, 中學生 組織이 그 중의 50%가 넘는다고 하는 발표를 보고 참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 學校에서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이 만연돼 가고 있다고 하면 그 教育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教育監의 대책과 소신을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철저한 경쟁과 시험 위주의 教育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初·中·高의 教育目的이 그 동안 일류대 합격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오늘의 教育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지존파나 이런 사람들이 인공위성 타고 다른 세계에서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 아니죠. 바로 우리들의 자식입니다. 또 미국 유학까지 갔던 아이나 또는 大學教授의 殺父事件같은 것도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로 우리 教育이 실제로 教育은 있으나 教育者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현재 社會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따지고 보면 教育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는 더욱 자괴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특히 韓國教育의 표본이 되고 先導者역할을 하고 있는 이 서

올에서의 敎育이 어떤 커다란 改革이 없이는 이를 수 없는, 改革이 정말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당위로서의 이에 대한 敎育監의 敎育改革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번 大選 때 金泳三 大統領께서 敎育大統領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敎育改革을 공약했던 敎育財政 GNP 5%는 아직 요원한 것 같습니다. 과연 실천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敎育改革은 말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敎育의 주체라고 할 敎師들이 소외된 상태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우리 社會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 敎育界라고 비판하는 얘기들을 흔히 듣습니다. 學校敎育 하면 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직된 조직으로 平敎師들의 다양한 의견이 좀처럼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平敎師들의 의견이 수용되고 참고될 수 있도록 制度的인 어떤 裝置를 해서 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대책이나 그런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敎育自治를 비판하고 있는 요즈음에 올바른 개혁을 위한 서울敎師 100人宣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른 敎育을 해 보자고 외치는 이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그 뜻을 수용해서 敎育政策에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敎育監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겹해서 質疑할 얘기는 현재 幼兒敎育에 있어서 大學에 부속된 유치원 또는 法人 宗教機關 등에서 유치원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宗教機關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중에 대개 교회에서 부설로 유치원들을 많이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렸을 때 대개 유치원 때에 머리 속에 박힌 생각이나 敎育들이 거의 평생을 간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혹시 基督教쪽에 편중된 敎育을 시킴으로써 애들 사고나 성정에 있어서 균형 잃은 그런 敎育으로 부터 출발하는, 敎育이라는 것은 그런 것부터 잘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염려를 해 보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에 상당수 유치원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에서 경영하고 있는 유치원의 숫자는 얼마나 되고 기타 다른 宗教機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유치원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저는 江東 出身입니다. 거기는 아주 女子高等學校가 태부족이어서 많은 女學生들이 他學群으로 배정을 받아서 登·下校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교실에 가서 공부하고 예습하고 그해야 할 시간에 아주 만원버스에 시달리면서 學校를 다녀야 하는 애들에게는 아무 죄도 없이 배정이 잘못돼서, 옆에 學校들이 있습니다만 그 學校에 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고생을 하는 수많은 애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대단히 시급한데 그 地域에 女子高等學校를 좀 新設하거나 增築하거나 그래서 他學群으로 배정되는 女學生들을 해결할 수 있는 施策이 언제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林靜枝 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林靜枝 委員; 林靜枝 委員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간단히 아까에 이어서 質問을 하겠습니다.

존경받는 師道가 성공한다면 敎育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師道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지난 30年間 軍人政治의 영향으로 社會 各 分野에서 서로를 존경하고 믿는 풍토가 무너졌다고 봅니다. 學校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社會的인 책임이 있지만 教育 차원에서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앞으로는 여성들의 社會참여로 해서 어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보내려면 中·高等學校 教育費와 맞먹습니다. 또 아이들의 지능지수도 높아졌습니다.

우리 나라는 人材 養成 내지 人的 資源을 활용해야하는 그러한 나라로서 教育의 支援을 늘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滿 5歲든 4歲든간에 1年間 유치원교육을 받되 이를 義務教育制로 할 생각은 없는지 建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環境教育에서 家庭하고 學校에서 실천하고 있는 또 실천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質問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鄭韓植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韓植 委員; 鄭韓植 委員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本委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學校騷音에 관한 質疑입니다. 本委員은 關係公務員 여러분들이 이러한 ,騷音被害를 모르고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報告書를 통해서 本委員보다 훨씬 더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 자세히 알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航空騷音을 조치한다거나 道路騷音 鐵道騷音에 관해서는 수없이 문께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명수대국민학교, 문창국민학교를 本委員뿐만 아니라 기타 많은 사람들이 議會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시기 등 六何原則에 의해서 어떻게 무엇을 언제까지 하겠다 정확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學校運營委員會 示範實施 運營方案에 대한 質疑입니다. 本 質疑에 대해서는 教育監이 직접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教育自治에 관한法律 第44條第2項에서 學校運營委員會의 設置를 規定하고 있습니다. 第2項을 보면 學校運營委員會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の 條例에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아직 大統領令이 정해져 있지 않고 뿐만 아니라 施行規則도 정해지지 않고 더욱이 우리 서울特別市議會에서는 이에 대한 條例를 制定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教育部長官의 業務指針을 發信者가 없이 學校運營委員會 示範實施 運營方案을 各級學校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시다시피 示範實施學校에서는 이와 같은 運營委員會를 구성하고 會議를 해서 會議錄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教育監은 大統領의 上位機構인가, 아니면 大統領令이나 서울시條例가 없는데도 어떻게 示範實施로 學校運營委員會가 버젓이 運營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명쾌한 答辯을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大統領令과 條例에 정하지도 않은 運營委員會 會議錄 등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위배한 것을 찾

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根據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를 정확한 答辯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더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許光泰 委員님 質疑해 주세요.

○許光泰 委員; 許光泰 委員입니다.

지금 드리는 質問은 6學年을 다니고 있는 저희 아들로부터 받은 質問입니다. TV를 보면서 質問한 것이 무슨 質問이나, 中學校 2學年 다니는 아들도 함께 質問했습니다.

"아버지, 5·18이 무엇이에요"라는 質問과 盧泰愚 前 大統領의 5,000億원 비자금 수수 사건이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서글프기도 하지만 이 質問에 대한 아이에게 뭐라고 答辯해야 될지 아버지로서 난감했습니다. 이런 아픔과 이런 진실된 것을 과연 느끼고있는 것은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敎育을 책임지고 있는 公務員 모두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一線敎師들께서는 社會敎育의, 歷史의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質問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統領께서도 어젯밤 긴급히 敎育部長官과 內務部長官에게 긴급히 指示한 事項입니다.

지난 會期에, 그 前 議會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주변의 불량 학생으로부터의 보호대책과 學校 內的 불량서클에 대한 質疑와 代案方法을 세우라고 指示한 바 있습니다. 서울敎育廳은 지난 17日 서울市內的 352個 中學校와 그리고 273個 高校學生들을 상대로 교내 불량서클에 대한 設問調査를 벌인 결과, 불량서클이 中學生이 118個, 高等學生이 31個, 상대적으로 中學生이 많습니다. 統計 149個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

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식을 가지고 있는, 자식을 學校에 보내고 있는, 자식을 기르고 있는 모든 父母들의 걱정입니다. 이것이 學校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현실은 더더욱 教師들 뿐만 아니라 일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미래의 이 나라의 學生들에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市教育廳은 이렇게 많은 불량서클이 있는데도 방치해 온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알고도 방법을 못 찾았는가, 불량서클 대책을 마련하여 社會의 기강을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 속에 大統領이 指示를 해야만 하는지, 이런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아이들의 불량서클에 대한 앞으로의 對策을 밝혀 주시고, 우선 불량서클 실태과악이 된 부분에 대해서 本委員에게 資料를 提出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피해학생 선도, 불량서클 재결성방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선도, 재결성 방지를 위해서 실시한 결과는 무엇인가 결과를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學生들을 불량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급한 對策이 조성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선도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質疑하실 委員님, 李善宰 委員님.

○李善宰 委員; 아까 여쭙보다가 좀 빠eM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글 미해독자, 그리고 셈 하기 못하는 學習遲進兒의 지능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학생수가 제일 많은 2個 教育區廳의 대상자의 개인 지능지수를 書面으로 提出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더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一括質疑를
마치고, 執行部의 충실한 答辯準備를 위하여 質疑에 대한 答
辯은 내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教育廳 教育長님들은 안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許光泰 委員; 아까 資料 要請한 관계된 教育長들은 나오셔
야죠?

○委員長 安順德; 答辯이 要請되는 教育長님께서서는 나오시고
요, 내일은 10시에 이 場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年度 서울市教育廳에 대한 오늘의 行政事務監查
日程을 모두 마치고 散會를 宣布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7時 04分 散會)

○出席監查委員

安順德 鄭韓植 孫馥 徐在浣

梁東錡 劉大運 李善宰 李英順

李載震 許光泰 金乙東 魚潤慶

林靜枝

○專門委員

尹炳國

○被監查機關參席者

서울特別市教育廳

教育監 李俊海

企劃管理室長 成耆璇